



재보험 해외수지 적자 규모 축소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금감원에 따르면 FY2012 상반기 우리나라 출재보험료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12.4% 증가한 4조 5,417억 원이며, 수재보험료 규모는 13.3% 증가한 3조 8,776억 원임.¹⁾

- 손해보험회사의 출재보험료는 원수보험료 시장의 고성장으로 13.7% 증가한 3조 9,275억 원을 기록하였으며, 수재보험료는 해외수재 부문 호조세로 13.3% 증가한 3조 8,680억 원을 시현함.
- 생명보험회사의 출재보험료는 6,142억 원으로 4.4% 증가하였으나 수입보험료 증가율 26.5%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며, 수재보험료는 20.0% 증가한 96억 원을 시현하였으나 전체 수재보험료 가운데 생명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0.2%로 미미한 수준임.

■ 국내 보험회사들의 위험보유 능력이 커짐에 따라 해외 출·수재 역조현상²⁾ 규모와 해외 재보험 적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음.

- 해외 출·수재 역조현상 규모는 RBC제도 도입 등에 기인하여 FY2010 9월 1조 4,292억 원, FY2011 9월 8,021억 원, FY2012 9월 7,259억 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.
- FY2012 9월 해외 재보험 손익은 89억 원 적자를 나타냈으나 이는 전년동기대비 95.2%나 감소한 수치임.

■ 금감원은 지속적인 재보험 해외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보험의 적정보유 및 수재능력 강화를 위한 담보능력 확충을 지도하는 한편, 무분별한 해외출재 억제에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.

- 또한, 해외수재의 경우 태국 홍수 등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 가능성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인수가 될 수 있도록 비상위험준비금 적립률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위험분산 강화를 지도하기로 함.

(FY2012 상반기 재보험 실적 분석 및 향후 감독방안, 금감원, 12/31)

1) 재보험에 가입하는 행위를 재보험 출재라고 하고 재보험을 받는 행위를 재보험 수재라고 함.
 2) 해외 재보험자로의 출재보험료 규모가 해외 보험회사로부터의 수재보험료 규모보다 큰 경우를 말함.